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는?

너~무 비싼 가격...정부 보조금마저 개인에겐 '상상 속 그대'



기아자동차 레이 EV

주행거리 : 91km
충전시간 : 급속 25분·완속 4시간20분
최대출력 : 68마력
최대토크 : 17kg·m
제 로 백 : 15.9초



기아자동차 쏘울 EV

주행거리 : 148km
충전시간 : 급속 24분·완속 4시간20분
최대출력 : 111마력
최대토크 : 29kg·m
제 로 백 : 11.2초



르노삼성 SM3 Z.E.

주행거리 : 123km
충전시간 : 급속 30분·완속 4시간
최대출력 : 95마력
최대토크 : 23kg·m
제 로 백 : 11.5초



한국GM 스파크 EV

주행거리 : 135km
충전시간 : 급속 20분·완속 4시간20분
최대출력 : 143마력(105kW)
최대토크 : 57.4kg·m
제 로 백 : 8.5초



BMW i3

주행거리 : 160km
충전시간 : 급속 30분·완속 8시간
최대출력 : 170마력
최대토크 : 25.4kg·m
제 로 백 : 7.2초



닛산 리프

주행거리 : 135km
충전시간 : 급속 30분(80%)·완속 4시간
최대출력 : 80마력
최대토크 : 28.5kg·m
제 로 백 : 11.5초

일상 주행엔 큰 불편함 없는 성능 제약 큰 정부 보조금 지급 걸림돌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불가 충전소도 부족...인프라 확대 시급

국내 전기차 시장 경쟁 본격화 되나? 현재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는 기아자동차 레이 EV와 르노삼성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EV 등 3종, 또 기아자동차 쏘울EV, BMW i3, 닛산 리프 등이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외형적으로는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듯하다. 하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전기차 경쟁은 이제 겨우 출발 단계다. 현재 시판중인 전기차 및 출시 예정인 전기차들의 특징과 시장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를 살펴본다.

●전기차 차별점 특징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전기차의 충전 시간과 한 번 충전 후 주행할 수 있는 총 주행 거리, 그리고 성능이다. 세 가지 제원을 중심으로 간략한 특징을 살펴봤다.

기아차 레이 EV는 1회 충전을 통해 최대 91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급속 충전시 25분, 완속 충전시 4시간20분 소요된다. 최대출력 68마력, 최대토크 17kg·m의 성능을 낸다. 0km에서 시속 100km/h까지 가속시간은 15.9초가 소요된다.

시판 예정인 기아차 쏘울 EV는 1회 충전을 통해 148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충전 시간은 급속 충전시 24분, 완속 충전시 4시간20분으로 레이와 동일하다. 하지만 성능은 레이보다 앞선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은 11.2초 이내며 최고속도는 145km/h, 최대출력 111마력, 최대토크 29kg·m다.

르노삼성 SM3 Z.E.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123km다. 국내 소개된 전기차 중 가장 넓은 실내공간을 갖췄다는 것이 장점. 급속 충전시 30분, 완속 충전시 4시간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은 11.5초이며 최고속도는 135km/h, 최대출력 95마력, 최대토크 23kg·m다.

한국지엠의 스파크EV의 주행거리는 SM3 Z.E.와 같은 135km다. 급속 충전시 20분, 완속 충전시 4시간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최대

출력 143마력(105kW)과 최대토크 57.4kg·m를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은 8.5초로 가속력에서는 국산 전기차 중 가장 앞선다.

국내 출시를 앞둔 BMW i3는 1회 충전으로 160km를 주행하며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7.2초 만에 도달한다. 최대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25.4kg·m로 가솔린 못지않은 파워를 자랑한다.

닛산 리프는 한번 충전하면 135km(미국 기준)를 달릴 수 있다. 급속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면 80% 충전하는데 30분이 걸린다. 가정에서는 6.6kW에서 4시간 정도만 충전할 수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선결 과제는?

차종별 특징과 제원을 살펴보면 당장 전기차를 구매해도 좋을 정도로 일상적인 주행에는 큰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누구나 전기차를 쉽게 구매할 수는 없다. 이유는 비싼 가격 때문이다.

국산 전기차 가격은 레이EV 3500만원, 쏘울EV 4200만원, 스파크EV 4000만원, SM3 ZE 4200만원선이며, 수입 전기차는 BMW i3

●전기차 공공충전기

충전소 인프라	현황	비고
정부 보조금	전국 959개소	200여개 이상 제주도에 편중
지자체 보조금	1500만원	2014년 254억원 규모로 제한(10대 선도 도시만 해당, 사업자 기관 위주)
가정용 완속 충전기	600~800만원	10대 선도 도시만 해당(개인 구매 지원 거의 불가)
10대 선도 도시 외 개인 구매시	대당 700~800만원	제주, 부산에서만 지원 가능, 공동 주택에서는 사용 불가
		정부 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불가

6000만원대(예상), 리프 5000만원대(예상)로 매우 비싼 편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누구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환경부 보조금은 1500만원이고, 지자체 보조금은 600~800만원 수준으로 이를 합치면 보조금으로 2100~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기차 10대 선도도시(제주, 서울, 창원, 광주, 대전, 춘천, 안산, 당진, 포항, 영광)에 한정되어 있어 공모 경쟁을 통해 당첨이 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활발한 제주의 경우에도 공모 경쟁률이 5:1이었고, 사업

자나 기관이 아닌 순수 개인이 혜택을 본 경우는 드물다.

이런 까닭에 민간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 운영 정책 변화는 물론 충전 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다. 현재 국내 등록된 전기차 충전소는 959개지만 200여개 이상이 제주도에 몰려 있다. 가정용 충전 인프라 역시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는 개인 주택이 아닌 공동 주택(아파트)의 경우 가정용 완속 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하다. 공동주택 충전 인프라 설치에 대한 제도 및 법규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전기차 시장 확대는 요원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웨어러블 기기에 패션을 입히다

LG 톤 플러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3D 넥 비하인드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 전자기기 충전 재킷·스마트 러닝화도 등장

입는 스마트기기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가 패션과 만났다. 최근 IT업계뿐만 아니라 패션업계에서도 IT의 첨단 기술과 패션의 디자인 요소를 결합한 융합 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패션 아이템 블루투스 이어폰·스마트폰 충전하는 아웃도어 재킷

LG전자에서 선보인 블루투스 이어폰 'LG 톤 플러스(HBS-800)'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인정받아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제품이다. IT기기지만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다.

목 뒤의 곡선과 제품 프레임이 매끄럽게 일치하는 '3D 넥 비하인드' 디자인으로 마치 착용하지 않은 듯 편안하다. 형상 기억 합금을 적용해 형태 변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성격에 충실하다.

스마트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로 전화를 받을 수 있어 통화 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자체 진동 기능을 탑재해 '부재중 전화'를 방지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을 자랑한다.

아웃도어 의류업계는 IT의 스마트 기능을 접목시킨 새로운 웨어러블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코오롱스포츠의 '라이프랙 재킷 버전7'은 조난을 당했을 때 구조 시까지 외부 상황을 극복하고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아웃도어재킷이다.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발열체인 히텍스를 적용했다. 배터리를 이용해 섭씨 35~50도의 열을 낼 수 있다. 윈드 터빈을 이용한 풍력 자가발전으로 스마트폰 등 간단한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 'LG 톤 플러스'



아디다스 '아디제로 F50 러너 2'



조이스테크놀로지 '엑스포인터 클럽'

●러닝화 속에 숨은 스마트칩·넥타이핀이 프레젠테이션 변신

I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운동기록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러닝화도 등장했다.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F50 러너 2'는 밑창 속에 작은 스마트칩인 마이코치 스피드 셀을 삽입했다. 360° 모든 방향에서 러너의 움직임을 잡아내 운동 시간, 운동 거리, 개인 최고 스피드, 페이스, 스프린트(전력 질주) 회수 등 모든 행동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평소에는 넥타이 핀이지만 이어폰 단자에 꽂

으면 레이저 포인터로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용 프레젠테이션도 있다. 조이스테크놀로지의 '엑스포인터(X-Pointer) 클럽'은 전용 앱을 활용하면 무선 프레젠테이션과 마우스로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최근 IT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는 몸에 착용하는 제품 특성상 디자인 등 패션요소가 주요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컴퓨터가 몸의 일부가 되면서 스타일까지 추구하는 웨어러블 패션시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rani@donga.com 트위터 @rani361

'발이 편한 신사화' 허시파피 바디슈 신상품 출시

캐주얼신발 브랜드 허시파피가 기능성 캐주얼 '바디슈(Body Shoe)' 라인의 2014년 신상품(사진)을 출시했다.

'바디슈'는 구두와 운동화의 장점을 결합해 스타일과 발의 편안함을 모두 살린 제품이다. 가볍고 편안한 아웃솔과 인솔을 탑재해 착화감이 뛰어나며, 범용성 있는 스타일과 워싱가죽 및 무늬피를 조합해 캐주얼한 멋을 더했다.

2014년형 바디슈는 내구성과 미끄럼방지 기능이 탁월해 아웃도어신발에 주로 탑재되는 비브람 아웃솔을 장착해 기능성을 업그레이드 했다. 발의 상태와 걷는 자세 등에 맞게 휘과 꺾임이 자연스러운 인솔 적용도 바디슈 라인의 특징



이다. 또 부드럽고 견고한 외피를 사용해 신발 형태를 오랫동안 잘 보존해준다. 가벼운 정장까지 소화할 수 있는 캐주얼한 디자인도 인기 비결이다. 문의 02-6470-7000

경제 브리핑

반얀트리 '명인 3인3색 한식요리' 프로모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명인 3인3색·약선·효소·사찰 요리 기행' 프로모션을 10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 한식 전문가인 3인의 명인이 특별 초청됐다. 한국전통음식연구소의 임미자 원장과 김덕녀 원장, 한국조리기능장 협회의 이순옥 이사장이 10일부터 하루씩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6가지의 일품요리를 선보인다. 메뉴는 돌솥에서 자란 돌나물과 달래, 참나물, 미나리를 넣은 새우 냉채, 효소 초간장을 곁들인 불채소 튀김, 약고추장소스의 궁중 메밀 비빔면, 산야초 장아찌 찜밥, 도라지 효소를 곁들인 터덕 닭갈비찜, 효소에 재운 한우 두툼말이다.

블랙야크 '그린야크 클린산행' 캠페인

글로벌 아웃도어 기업 ㈜블랙야크(대표 강태선)가 명산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그린야크 클린산행 캠페인(사진)'을 연중 전개한다. 캠페인 첫 날인 5일에는 서울

관악산에서 블랙야크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블랙야크 임직원은 매달 블랙야크의 '명산 100 도전단'들이 선정한 명산을 찾아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할 예정이다. 그린야크 클린산행 캠페인은 블랙야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초 산악정보 사이트인 마운틴북(www.mountainbook.co.kr)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센터폴 '더미작스 3L 방수재킷' 할인 판매

세정의 트레킹 전문 아웃도어 센터폴이 '2014 센터폴 몽블랑 원정대' 발대를 기념해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더미작스(Dermizax)' 3레이어 나뉜 방수재킷 2종을 전국 센터폴 매장에서 20% 할인 판매한다. 행사는 4월부터 제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롯데제과, 월드콘 새 광고모델 '엑소' 발탁

롯데제과가 월드콘의 새 광고모델로 아이돌 그룹 엑소(EXO)를 발탁했다. 롯데제과가 엑소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것은 올해 크런키 광고에 이어 두 번째다. 롯데제과는 엑소의 크런키 광고가 방영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신장하는 등 스타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다.

편집 | 김재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